

●김성숙 명예교수 시화집 '생의 찬가' 출간

“생명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참 멋져요. 순간순간의 변화는 유한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주죠. 시집에는 자연의 서정을 비롯해 사랑에 대한 단상,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생명 예찬 속 피워낸 감사와 사랑의 노래



'Dream 2020'



시 82편·어머니 그림 등 회화 50점 7부로 나눠 수록
일상 속 작은 야생화 찬사부터 오월 아픔까지 노래

김성숙(사진) 광주교대 명예교수의 첫번째 시화집 '생의 찬가-감사와 사랑의 노래'(문학동네)가 출간됐다.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이번 시집은 지난해 현대문인으로 등단한 김 교수가 매일같이 써 내려온 시 300여편 중 총 82편의 시를 주제에 따라 7부로 나눠 실어낸 결과물이다. “일상을 살아가며 이따금 떠오르는 짧은 생각을 노트에 기록하곤 했어요. 꽃, 나무, 구름 등 보는 대로 떠오르는 느낌을 몇 줄씩 적어냈죠. 미흡한 실력이지만 제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의 말을 글로 표현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아울러 이번 시화집에는 미술을 전공한 김 교수가 그간 그려온 그림을 비롯해 95세 어머니인 김옥자 여사가 손수 그린 그림 8점을 포함한 총 50점 회화가 함께 수록돼 있다.

김 교수가 본격적인 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 건 2021년 말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인 강석진 시인의 시화집을 선물 받으셨던 때부터다.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통화에서 “매일 한 편씩 시를 써보라”는 강 시인의 한마디가 시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

“자신이 쓴 시를 일주일 뒤, 한 달 뒤 보고 또 보고 고쳐보고, 명시선 등을 참고하며 아름다운 시어를 고민해볼 것을 지속적으로 일러주셨어요. 꾸준한 격려와 조언으로 여

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록작 중 ‘생명 예찬’은 시집 제목과도 맞아 있는 작품이다.

“저마다/나름대로/예쁘다/귀엽고/사랑스럽다//그 모습 그대로/살아 있는 모든 것은/아름다워라//오묘하고 신비한 생명이여”

“어느 날 길을 가다 밟을 뻔한 작은 야생화를 보고 쓰게 된 시예요. 발을 슬쩍 비켜보니 엄청 작은 꽃이 있는 거예요. 화원 속 장미나 국화 등 잘 다듬어진 꽃도 예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생명을 꽃피워내고 있는 존재가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특히 마지막 장인 제7부 시들은 시대의 어두운 단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희구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태원 참사, 오월 항쟁의 아픔 등을 노래한 시들이다.

김 교수는 “그림 그리기와 시 쓰기는 진공의 시간 속 우주 생명의 에너지와 교감하는 일이자 자아를 체험하는 일이다”며 “내게 생명을 주고 순간순간 나를 숨 쉬게 하는 고마운 인연과 그리고 매일 새 삶을 열어주는 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고 말했다.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는 시론을 통해 “김 시인의 작품은 원망과 후회의 노래가 아닌 감사와 사랑의 노래를 작심한 듯 쏟아내

고 있다”며 “그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고 신선한 언어로 토해내는 시작(詩作)에 무한한 정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로 펼쳐낸 성공, 행복의 길

김정대 호남대 교수 '핑킹디자이너' 출간

공직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제2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김정대(사진) 호남대 교수의 책 '핑킹디자이너'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속 너무나 나이테처럼 생긴 삶의 흔적 '인생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다.

현재 호남대 AI교양대학에서 교양수업을 맡고 있는 저자는 정체성 발견과 미래 변화 트렌드에 걸맞은 자기개발 중심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책은 지난 40년 간의 공직생활 속 아름다운 추억을 꾸밈 없이 보여주는 단락으로 시작된다. 이어 서기관 공직 당시 업무와 관련



된 제언을 신문사에 기고한 내용과 공직 이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활동하며 도움을 주고 받으며 대안을 제시했던 이야기를 펼쳐낸다. 마지막 장에서는 사계절마다 담은 순수하고 오묘한 감성을 독자와 함께 공유한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방에서 광주시로 전입할 당시의 이야기다. 그는 7급에서 9급으로 강등됐지만, 전입 이후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2번의 특진을 거치고 대통령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퇴직 이후에는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대학교수, 퍼실리테이터, 청년 창업멘토 등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현재도 다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이어가는 중이다.

저자는 “소소한 일상의 삶을 민낯으로 고스란히 그려내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년, 퇴직을 앞둔 중장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며 “힘든 세상이지만 그동안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의 흔적의 기록들을 공유함으로써

작은 위안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책을 출간한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어해주는 신개념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 활동을 광주 최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독자들이 도서관에 준비된 사람책 목록 중에서 읽고 싶은 사람책을 골라 대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 자유로운 대화와 정보를 전달 받는 방식이다.

그는 “서로 간 질문 북돋음을 통해 지나온 삶의 흔적 중 고난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드러내고, 그간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꺼내 이야기 나눔으로써 다양한 독자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삶과 지금의 삶을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더 행복해지는 삶과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핑킹디자이너 역할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폴링 인 폴=백수린 저자
‘빛의 소설가’ 백수린의 첫번째 소설집 ‘폴링 인 폴’이 출간 십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초판에 해설을 실었던 서영채 문학평론가와 의 인터뷰를 통해 백수린 소설세계가 지나온 궤적을 돌아볼 수 있게끔 했다. 작중에서 모종의 아픔을 겪고 이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화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고요함과 더불어 쓸쓸함을 느낀다. 허름한 진실보다 그럴싸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던 그는 모국에서도 불가능했던 투명한 소통의 가능성을 회의하며 침묵하지만, 어떠한 순간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을 떼고 말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문학동네·1만7천원



▲마음 해방=곽정은 저자
‘마음 해방’은 두려움, 상처, 트라우마, 관계에 대한 집착, 탐욕, 비합리적 신념, 자기혐오의 목소리, 용서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미움, 반복되는 우울감 등 저자가 그간 겪은 일들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풀어나간 책이다. 심리학, 뇌과학 이론 및 초기경전을 넘나들며 자기 인생을 자기 힘들게 만드는 고착화된 상처의 되새김을 끊어낼 방법으로 그는 ‘알아차림’을 제시한다. 내밀한 자기고백을 뜨겁게 풀어놓으며 연인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휘둘렸던 시기에 인도 명상학교로 떠나 지금에 이른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음 해방의 여정을 연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천500원



▲숲이 내게 걸어온 말=최정희 저자
이 책의 저자는 20년 간 숲속에서 사람들과 활동을 하며 숲을 읽어주는 시간을 보냈다. 그 긴 시간 동안 숲은 ‘한 권의 책이자 한 편의 드라마’가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어느 해 겨울, 우연히 마주한 ‘1cm 냉이’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결심을 하게 됐고, 이때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크게 새겨 남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잘 살아가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일흔이 넘는 저자가 말하는 숲 이야기, 그리고 짧은 단상들은 익숙한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한다.

/셀렌(SEOLREM)·1만6천800원



▲매일매일 피어날=김준현 글, 유진희 그림
탄생의 기쁨, 한 해 무탈하게 자라온 아이를 향한 아름다운 바람을 열두 달 꽃과 열매로 담은 그림책이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햇살과 비바람에 흠뻑 젖어 열매를 맺는 경이로운 여정은 매일매일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차디찬 눈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는 동백의 기세와 장수를 기원하는 목련의 기운,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나아가길 응원하는 살구꽃 마음, 나쁜 운을 막고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수국의 소망이 담겼다.

/웅진주니어·1만6천800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